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이 왔습니다. 시간은 무지막지 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그냥 흘러갑니다. 시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떠셨는지요?

217 번째

2024년 새 해를 맞이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며칠 일찍 2023년의 마지막 소식을 전합니다.

참되고 지혜롭게

2023년 12월 28일

P.O. Box 11701 Kampala Uganda

이동해_salt dh@gmail.com
김은희_salt keh@gmail.com

이동해_salt dh
김은희_salt keh

이동해_+256(0)774-605808
김은희_+256(0)784-239806

후원금 관리_서현교회 권정선 자매
(010-5348-2824)



지난 달 졸업식을 마치고 방학에 들어간 학교는 약 2주간에 걸쳐 자체 모임을 갖고, 우간다에서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교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올 해는 몇 분께서 교사들을 위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선물과 간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희 교사들을 격려해 주고 싶으신 분들의 후원을 환영합니다^^ 참, 그리고 이번에 교사 세미나 강사로 수고해 주신 선교사님은 요즘 한국에서 "싱어게인3"라는 프로그램에서 잘 나가고 있는 '홍이삭'군의 아버지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시죠. 저희가 이 선교사님 부부랑 매우? 친하답니다. ♪ 그리고.... 또 이별~~



지난 10월부터 함께 생활했던 자매들이 두 달간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하고 지난 11일 우간다를 떠났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리고 두 사람에게 허락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길 바라고,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물론 한 동안 힘들었습니다.

헤어짐이란.... 절대 익숙해 질 수 없는 힘든 감정입니다.



아이들과 헤어진 허전함을 뒤로 하고 학교는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비만 오면 진흙 바닥으로 고생했던 주차장 부분을 보도블럭으로 깔았습니다. 오랜 숙원 사업이었는데, 드디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갈라지고 굵힌 강당과 도서실 마루바닥을 새로 칠하고 강한 햇볕에 헤어진 교실 문들을 수리하고 칠을 다시 했습니다.

8년 차에 접어든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이 새는 강당 지붕은 철재 구조물로 다시 세우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임시 방편으로만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다시금 깨닫는 것은..... **선교는 관리입니다!**



12월을 지내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위해 수고한 운영 이사들과의 모임과 저희 마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마을 이장, 경찰, 군인들을 찾아 작은 선물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참, 12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우간다에서는 한국의 명절처럼 휴가가고 선물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교 소식을 전하는 시간상으로는 이미 지나갔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3년, 되돌아보며 여전히 고백하게 되는 건,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된 새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HAPPY NEW YEAR, 2024!!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2023년을 함께 해 주신 모든 후원자와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사랑이 더욱 깊어 지도록.
2. 2024년에 진행될 사역들에 지혜와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사역들이 되도록.
3. 2024년에도 학교의 교직원, 현지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역이 넓어지도록.
4. 모든 사고와 질병에서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5.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삶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6. 1월부터 시작하는 강진이의 인턴 과정이 잘 준비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7. 사회복지요원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강현이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녀가 되도록.